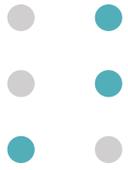




# 지역주도의 新혁신성장거점 육성 : 내포신도시의 가능성과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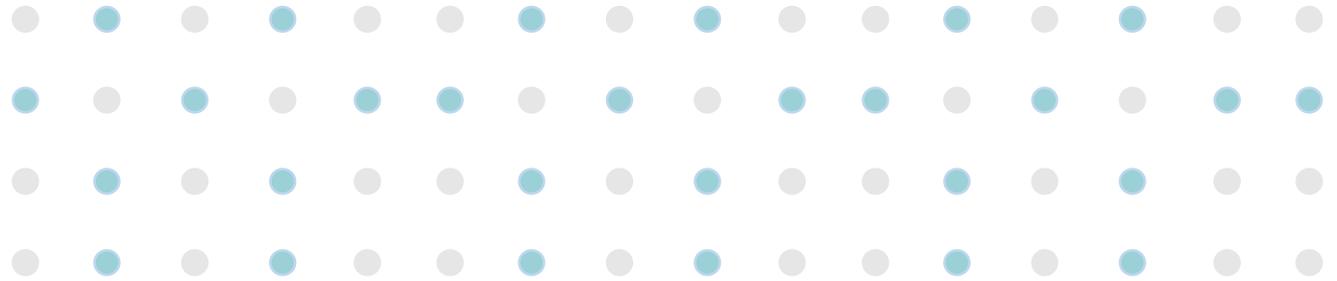
토의 자료 (2017. 10. 19)

류승한 (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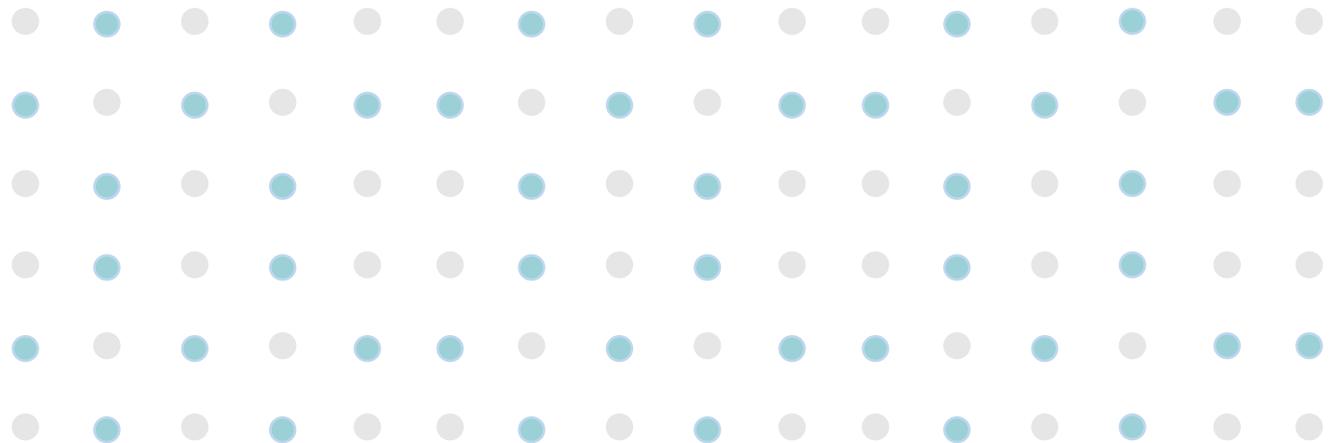


# 차례

- I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- II. 내포 신도시 개관
- III. 혁신도시에 비추어 본 내포신도시의 과제
- IV. 관련 쟁점과 토의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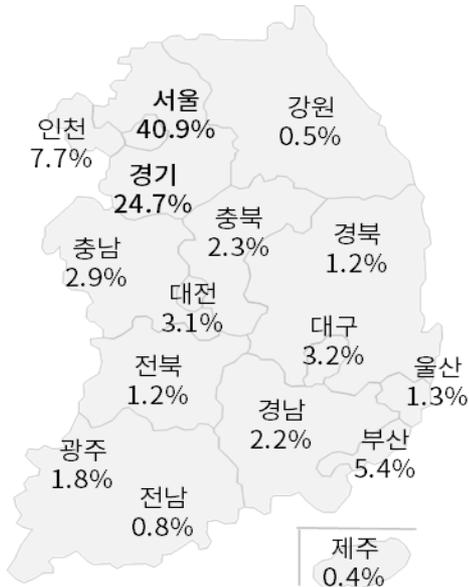
# 1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


# 1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
- **지속적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취약**
  - 수도권은 과잉 집중에 따른 비효율, 지방은 과소화에 따른 악순환의 문제에 당면
  -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

<근무지기준지역별 채용공고비중>



자료: 잡 코리아 (2015년 1년간 공고 기준)

<국가생산과인구에서 차지하는 세계대도시권의비중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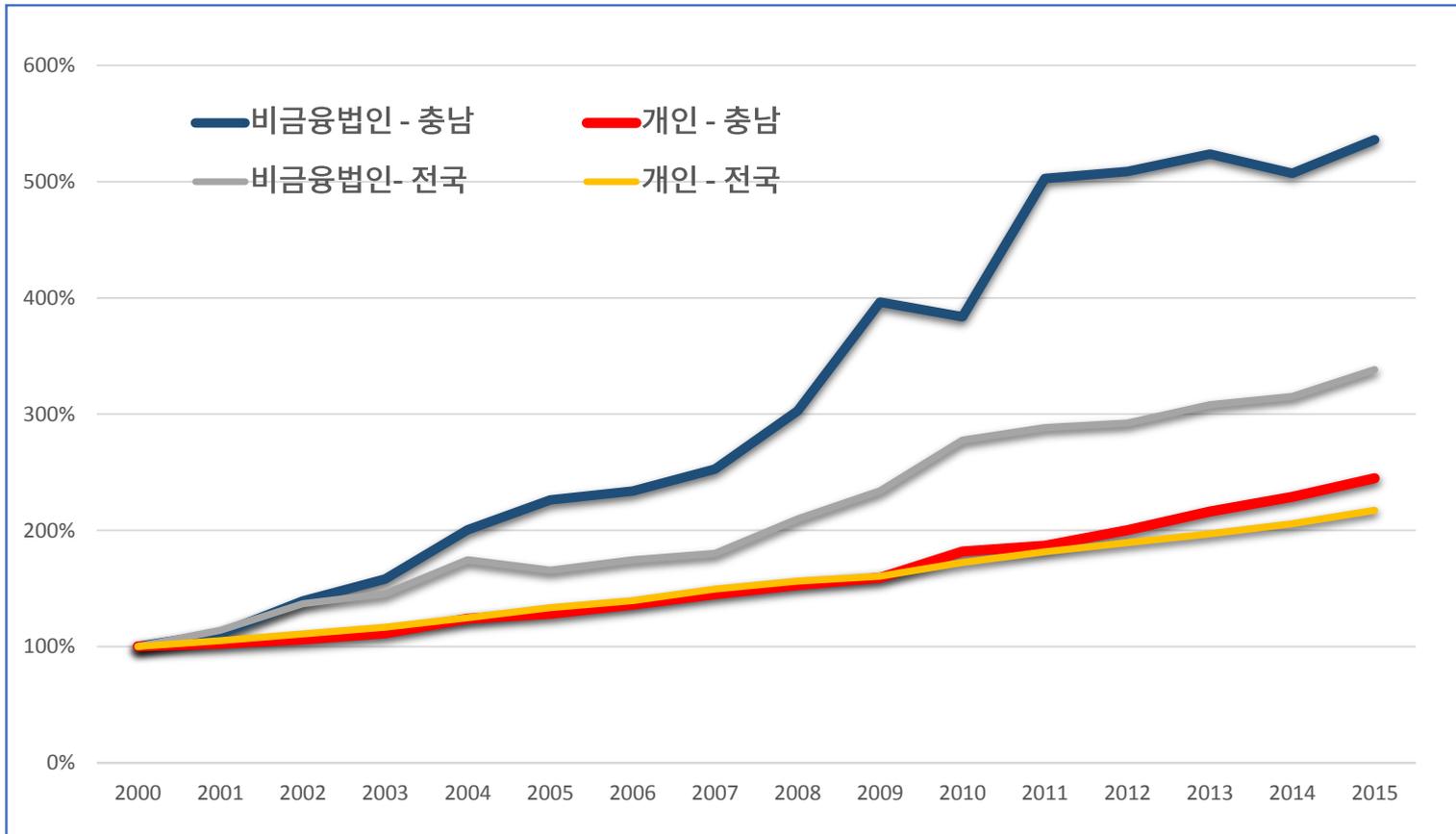
순위	도시권	국가 GDP %	국가 인구 %
1	서울-인천	47.4	48.8
2	로테르담-암스테르담	39.6	41.8
3	동경	34.0	29.2
4	런던	32.0	22.4
5	방콕	28.8	22.9
6	파리	27.6	18.1
7	이스탄불	23.1	17.8
8	멕시코시티	18.8	16.5
9	토론토	17.3	16.8
10	마드리드	16.9	14.4

자료: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, 2016

# 1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
- 기업 부문 가치분소득의 급증과 개인부문 소득의 상대적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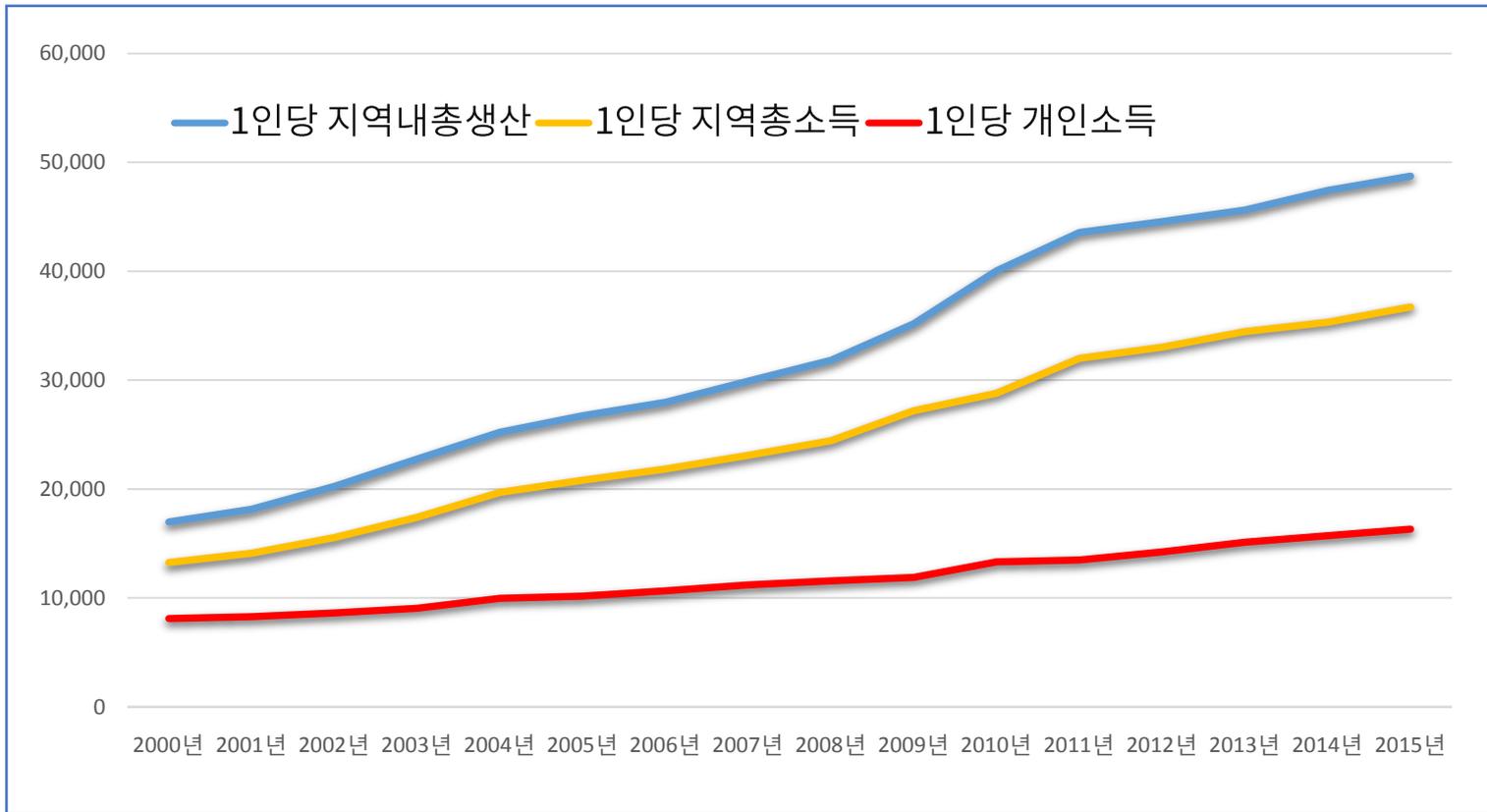
< 비금융법인과 개인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 추이(2000년=100)>



# 1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
- 투자유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주민 체감도를 낙관하기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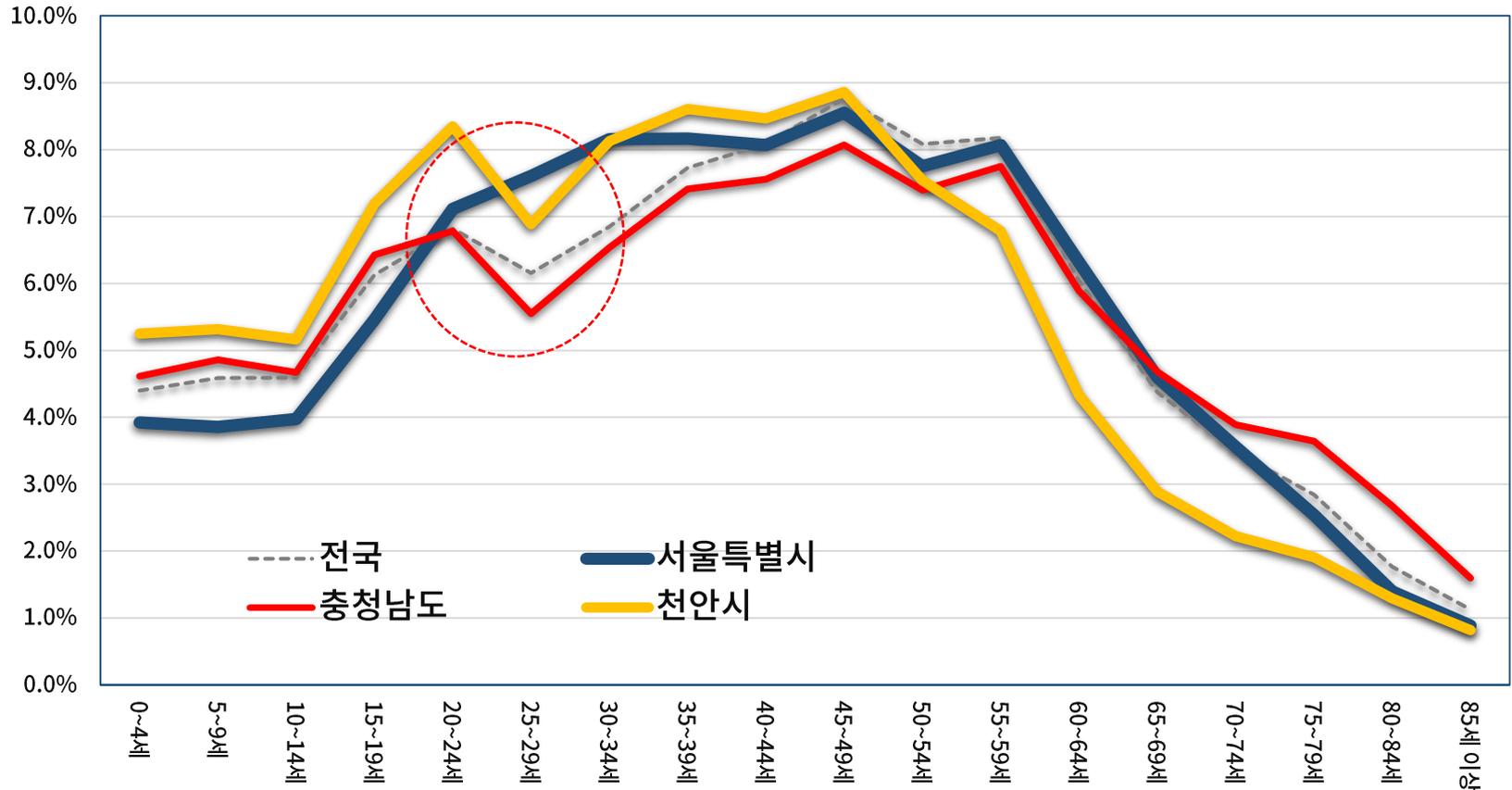
<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지표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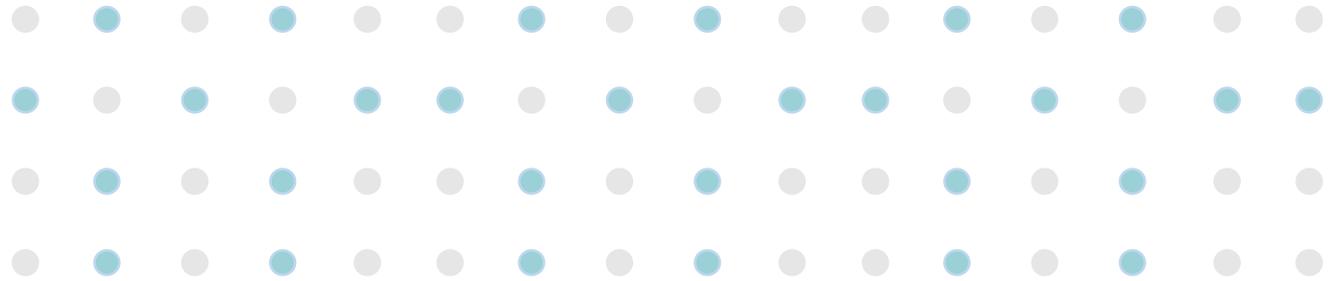


# 1.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필요성

- 일자리의 부족은 인재의 역외 유출 등에 따른 악순환을 야기  
 ⇒ 지역의 창업역량 강화 등 내생적·질적 발전 기반 구축 필요

<연령별 인구구성비(2016년)>





## II. 내포 신도시 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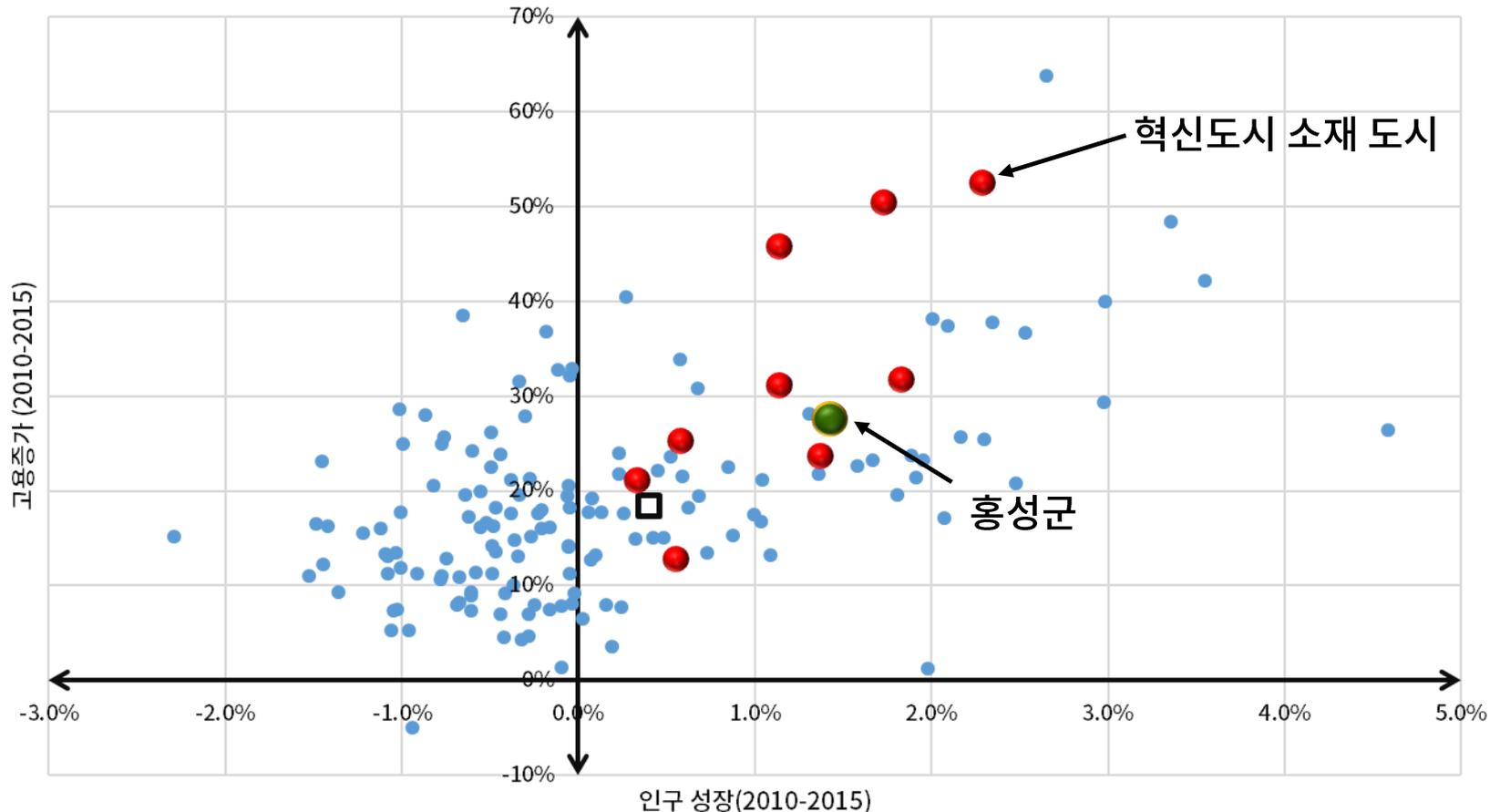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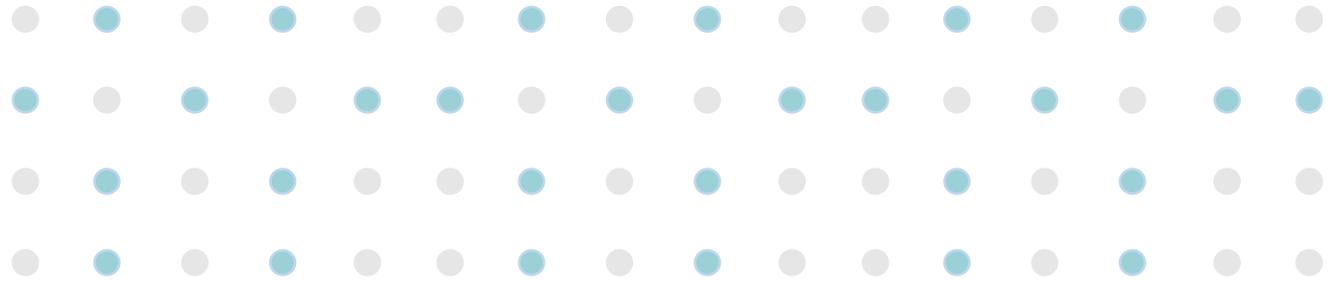
# 1. 내포 신도시의 목적과 개발방향

- **충남도청 등 충남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거점을 형성**
  - 도시발전의 방향: 첨단산업도시, 통합형 행정도시, 건강복지도시
  - 목표 인구: 2020년 신도시인구 10만인
- **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은 미진**
  - 현재 신도시인구 3만인에 미달 (다른 도청이전 신도시와 유사한 궤적)
  - 인구부족으로 인한 민간시설의 유치 부진, 정주여건의 취약성
- **내포 신도시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최근 정책방향**
  - 정주여건 및 환경 개선
  - 인구 유입의 새로운 계기로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유치
  - 천안-내포를 연결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

## 2. 내포 신도시의 성과

- 목표 대비 실적의 미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노력으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⇒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 필요





# III. 혁신도시에 비추어 본 내포 신도시의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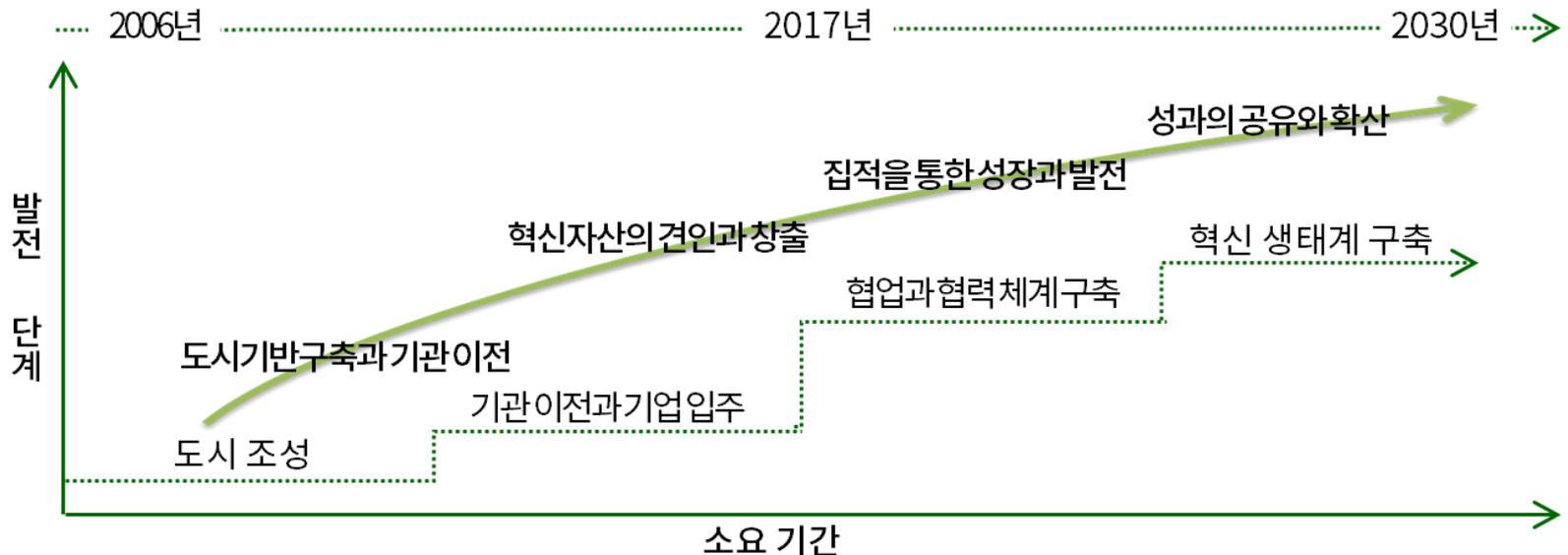
# 1. 혁신도시 발전의 과제

## 기관 이전과 도시건설 (혁신도시 1.0)

-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의 외형 건설
- 공공기관 및 인구증가에 유발된 일자리
- 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
- 혁신도시 내부적인 정비
- 도시건설과 기관이전 중심 거버넌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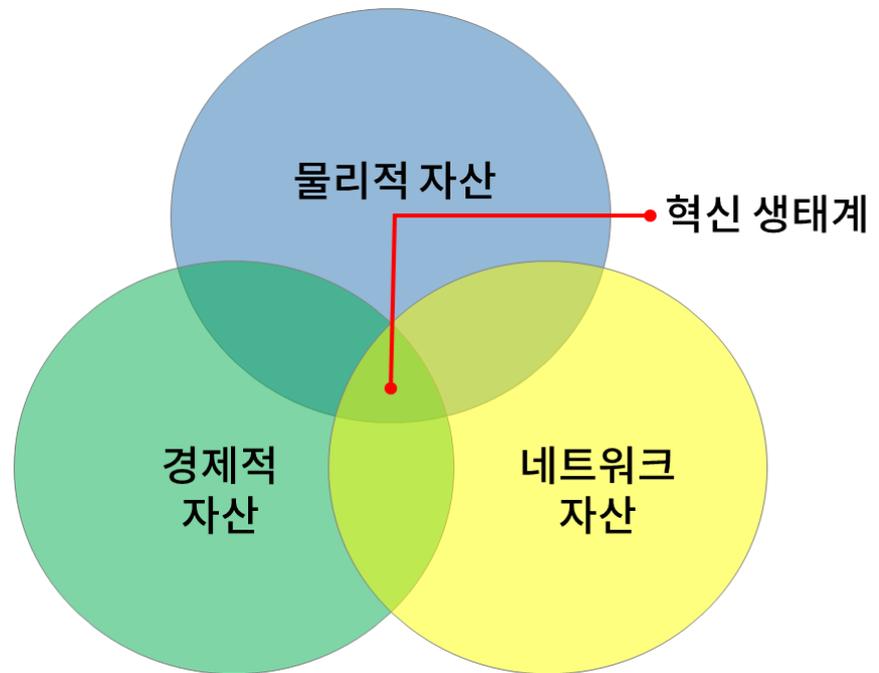
## 균형발전 선도 거점화 (혁신도시 2.0)

- ▶ 자립발전 역량을 갖춘 **일자리생태계** 구축
- ▶ **창업** 등에 기반한 **양질의 일자리**
- ▶ **스마트·혁신 인프라**+도시 **어메니티** 확충
- ▶ 기존 도시와의 **상생발전** 및 성과의 확산
- ▶ 혁신도시발전과 거점화를 위한 **거버넌스**



## 2. 혁신 거점의 조건

- 혁신거점의 계획적 육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 및 네트워크 자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
  - 경제적 자산: 혁신 환경을 주도하고, 육성하며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
  - 물리적 자산: 연결성과 협력 및 혁신 수준 제고가 가능한 공간(건물, 오픈 스페이스, 거리 및 기타 인프라)
  - 네트워크 자산: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및 조직 등 관련 주체간의 관계



출처: Brookings(2017)

### 3. 혁신거점 육성의 과제

#### ① 도시발전과 집적이익 창출을 위한 임계규모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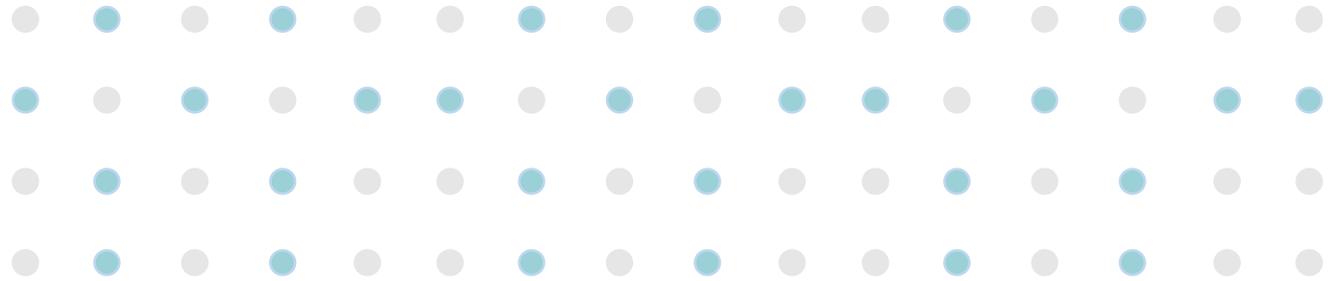
- 기업, 공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한 인구 및 경제활동 기반의 구축
- 내생적 발전전략하에서도 초기단계에는 투자유치 등을 통한 기반구축 불가피

#### ②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

- 산학연클러스터 등을 통해 물리적 집중을 실질적 집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 필요
-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교류협력의 기회 제공 및 협력의 앵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유치, 신설

#### ③ 주변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체계 구축

- 도시발전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확산 및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제도화
- 단기적으로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더라도 상생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초기에 마련할 필요



# IV. 토의 과제



# 1. 토의 과제

- 지역 주도형 신성장거점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
  - 안동, 목포 등과의 연관성 및 차별성 확보
    - 도청이전 신도시로 개발되었으나 행정구역내에 혁신도시 소재
  - 지역의 전통적 중심지역 vs 상대적 낙후지역
- 공공기관의 유치 vs 혁신도시의 지정 간의 논점 조정
  -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8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집단적 이전 유치를 위한 제도적 수단
  - 혁신도시의 추가적 지정보다는 이전 공공기관의 유치가 중요: 공공기관의 이전은 세종시, 혁신도시 등을 통한 집단이전과 개별이전으로 구분되어 시행

# 1. 토의 과제

- 세종시의 분리가 신성장거점 형성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검토
  - 이론적 논의
    - 행정구역과 실질(기능) 지역은 무관하므로, 행정구역의 분리가 지역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는 않음
  - 실질적 효과
    - 행정구역의 분리는 정책지원사업의 분리와 직결
    -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육성 정책에서의 소외 가능성
    - 지역인재채용 등 광역지자체 단위 사업 적용의 한계
    -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에 한계



# 감사합니다

(shryu@krihs.re.kr)